

2018년 경찰 한국사 3차(12월 22일 시행)

1. 다음 유적이 형성된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 ☐ 봉산 지탑리 | ☐ 서울 암사동 |
| ☐ 양양 오산리 | ☐ 부산 동삼동 |

- ① 사람들이 이동 생활을 하며 동굴, 바위그늘, 막집에서 살았다.
- ② 농경에 의한 식량 생산 경제를 배경으로 전개되었다.
- ③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이 만들어졌다.
- ④ 덩이쇠가 생산되어 여러 나라에 공급되었다.

정답 : ②

제시된 유적지는 모두 '신석기 시대' 유적지로 신석기 시대의 사회상을 찾는 문제이다.

② 신석기 시대에 처음으로 조·파·수수 등의 원시 농경이 시작되면서 채집 경제에서 생산 경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①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살거나 물을 얻기 쉬운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다. ③ 청동기 시대에는 비파형 동검과 같은 청동제 무기를 사용하였고, 계급이 발생하면서 지배층인 군장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고인돌이 만들어졌다. ④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발전한 삼한 중 변한에 대한 설명이다. 변한은 철을 생산하여 낙랑과 일본 등지에 수출하였으며, 이를 교역에서 화폐처럼 사용하기도 하였다.

2. ㉠과 ㉡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 고국원왕이 근초고왕의 군사와 벌인 전투에서 전사했다. |
| ㉡ 비유왕이 눌지마립간과 동맹을 맺었다. |

- ① 미천왕이 낙랑군을 축출했다.
- ② 한성이 함락당하고 개로왕이 살해되었다.
- ③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겼다.
- ④ 진흥왕이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하고 북한산에 순수비를 세웠다.

정답 : ③

㉠은 371년 평양성 전투에서 고국원왕의 전사, ㉡은 433년 비유왕과 눌지왕 사이의 나·제 동맹 체결에 대한 내용이다.

③ 고구려 장수왕은 427년 고구려의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이동하였다.

① 고구려가 낙랑을 축출(313)한 것은 미천왕(300~331) 때의 일이다. ② 장수왕은 남하 정책을 실시하여 475년에 한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고 이 때 개로왕이 사로잡혀 죽음을 당하였다. ④ 신라 진흥왕은 554년에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에 승리한 후 한강 지역을 독차지하고 555년에 북한산 순수비를 세웠다.

3. 가야 연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금관가야가 전기 가야 연맹의 중심이었다.
- ② 5세기 초 고구려와 신라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타격을 입었다.
- ③ 후기 가야 연맹은 소백산맥 너머 호남 동부 지역까지 권역을 넓혔다.
- ④ 백제 멸망 후 부흥군을 도와 백강 전투를 벌였으나 당나라 군대에게 패배했다.

정답 : ④

④ 백강 전투는 663년의 일로, 가야 연맹이 멸망 한 후의 사실이다. 백제 부흥 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백강 입구에 진입하였으나, 백강 입구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일본이다.

①, ② 신라의 요청에 의한 왜구 격퇴(400) 과정 속에서, 고구려가 전기 가야를 비롯한 한 반도 남부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이 과정 속에서 김해의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하는 전기 가야 연맹이 쇠퇴하게 되었다. ③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 무렵에 대가야는 서쪽으로 영토를 개척하여 소백산맥을 넘어 전라북도 남원·임실 지방까지 세력을 확장하였다.

4. 밑줄 친 왕의 업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왕이 관산성에 쳐들어왔다. 신주(新州)의 군주 김무력이 병사를 이끌고 나아가 싸웠는데, 비장인 삼년산군의 고간 도도가 빠르게 공격하여 왕을 죽였다.

- 『삼국사기』 -

- ①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 ②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을 반포했다.
- ③ 관등제의 골격을 마련하고 낙랑군·대방군과 공방을 벌였다.
- ④ 화랑도를 통해 양성한 인재를 관료로 선발했다.

정답 : ①

밑줄 친 ‘왕’은 관산성 전투(554)에서 전사한 백제 ‘성왕’이다.

① 백제 성왕은 백제의 중흥을 꾀하며 수도를 웅진(공주)에서 사비(부여)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라 하였다(538).

②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을 반포한 국왕은 고구려 소수림왕, 신라의 법흥왕이다. ③ 고이왕 때에 이르러, 백제는 확대된 영토와 통치 조직을 갖추으로써 중앙 집권 국가로서의 기틀을 확립하였다. 이때의 백제는 한성을 중심으로,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한 군현과 항쟁하였고, 대내적으로는 새로운 관제를 마련하고, 관리의 복색을 제정하는 등 지배 체제를 정비하였다. ④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개편한 것은 신라 진흥왕 때의 사실이다.

5. 밑줄 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 나라는 사방 2천 리에 이른다. 주와 현 및 객사와 역참이 없고 곳곳에 촌락이 있는데 모두 말갈 부락이다. 그 백성은 말갈이 많고 토인이 적다.

- 『유취국사』 -

- ① 대가들의 호칭에 말, 소, 돼지, 개 등 가축의 이름을 붙였다.
- ② 민며느리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 ③ 왕족과 귀족을 돌무지덧널무덤에 장사지냈다.
- ④ 고구려 유민이 촌장이 되어 지방을 다스렸다.

정답 : ④

밑줄 친 ‘나라’는 발해이다.

- ④ 문제에 제시된 사료 『유취국사』에 따르면 발해의 주민은 말갈인이 가장 많고 토인(土人, 고구려인)은 그보다 적지만, 모두 토인을 촌장으로 삼는다고 한다. 대촌(大村)의 촌장은 도독이라 부르고 그 다음 촌의 촌장은 자사라 부르며, 그 아래의 촌장은 수령이라 불렀다.
- ① 부여에 대한 내용이다. 부여에는 왕 아래에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와 대사자, 사자 등의 관리가 있었다. 이들 가(加)는 저마다 따로 행정 구역인 사출도를 다스리고 있어서, 왕이 직접 통치하는 중앙과 합쳐 5부를 이루었다. ② 매매혼의 일종인 민며느리제가 행해진 나라는 옥저이다. ③ 돌무지덧널무덤(석석목곽분)은 4~6세기 신라 마립간 시기의 대표적인 묘제이다.

6. 각 승려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장이 세속오계를 정하고 수나라에 군사를 청하는 표문을 작성했다.
- ② 원효가 중국 유학에서 돌아와 「화엄일승법계도」를 지어 화엄의 정수를 제시했다.
- ③ 의천이 천태종을 개창하여 선종을 포섭함으로써 화엄종을 억압하고자 했다.
- ④ 지눌이 불교계를 개혁하기 위해 결사운동을 펼치고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는 이론체계를 제시했다.

정답 : ④

④ 지눌은 수선사 결사 운동으로 승려 본연의 자세에서 독경과 선 수행, 노동에 고루 힘쓰자는 개혁을 제창하였다. 이를 위한 사상적 배경으로 선과 교학이 근본에 있어 둘이 아니라는 사상 체계인 정혜쌍수와 내가 곧 부처라는 깨달음을 위한 노력과 함께, 꾸준한 수행으로 깨달음의 확인을 아울러 강조한 돈오점수를 주장하였으며,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① 화랑도에게 세속오계를 내리고 수나라에 군사를 청하는 ‘결사표’를 작성한 인물은 원광이다. ② 당 유학 이후 『화엄일승법계도』를 지었으며, 부석사 등의 화엄종 사찰을 중심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펼친 승려는 의상이다. ③ 의천은 흥왕사를 근거지로 삼아 화엄종을 중심으로 법상종을 비롯한 각지의 교종을 통합하려 하였으며, 선종까지 통합하기 위해 국청사를 창건하여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7. 고려의 중앙 정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초기에는 광평성, 순군부 등 신라의 관제가 존속되었다.
- ② 상서성에 소속된 6부가 각각 국무를 분담했다.
- ③ 도병마사는 추부라고 불리며 군사 기밀과 왕명 출납을 관장했다.
- ④ 식목도감은 백관을 규찰·탄핵하는 언관의 역할을 맡았다.

정답 : ②

② 상서성은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로, 6부의 통솔과 정책 운영을 맡았고 예하의 6부는 문·무관의 인사, 호구와 조세, 외교·교육, 법률과 소송, 토목과 건축 등의 국무를 분장하였다.

① 광평성, 순군부 등은 고려 건국 이전 태봉 시기의 관제로, 고려 태조는 태봉의 관제를 이어받아 국정을 운영하였다. ③ 중추원은 국정을 담당한 국가 중추 기구로 추밀과 승선으로 구성되었다. 대개 2품 이상의 고관으로 구성된 추밀은 군국 기무와 군사 기밀을 담당하였고, 정3품 이하의 승선은 왕명 출납과 궁궐 숙위를 담당하였다. ④ 식목도감은 고려의 독자적 기구로서 법제 및 격식을 담당하였다. 백관의 규찰과 탄핵은 어사대에서 담당하였다.

8. 밑줄 친 ㉠의 집권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적신 이의민은 성품이 사납고 잔인하여 윗사람을 업신여기고 아랫사람을 능멸하여 주상의 자리를 흔들고자 하니 신(臣) ㉠ 등이 폐하의 위엄에 힘입어 일거에 소탕하였습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새로운 정치를 도모하시어 태조의 바른 법을 따라 빛나게 중흥을 여소서. 삼가 열 가지 일을 조목으로 나누어 아립니다.

- 『고려사』 -

- ① 무신정권을 반대하는 김보당, 귀범사 승도의 반란이 일어났다.
- ② 교정도감이라는 독자적인 집정부가 만들어졌다.
- ③ 정방이 설치되어 인사 문제가 처리되었다.
- ④ 서방에서 문신들이 숙위하며 정책을 자문했다.

정답 : ②

밑줄 친 ㉠은 이의민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한 ‘최충현’이다.

② 최충현은 최씨 정권의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숙청할 목적에서 교정도감을 설치하였다.

① 김보당의 난, 귀범사 승려의 난 등은 정중부 집권기에 일어났다. ③ 최우는 정방을 설치(고종 12, 1225)하여 모든 관직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하였고, 여기에 문신들을 소속시켜 정색승선(政色承宣)이라고 불렀다. ④ 최우는 문사(文士)들의 숙위 기구인 서방을 자기 집에 설치하고, 문신들을 세 번으로 나누어 교대로 숙위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문학적인 소양과 행정 실무 능력을 갖춘 문신들(사대부)이 서방을 통해 등용되어 최씨 정권의 자문 역할을 하였다.

9. 공민왕이 펼친 개혁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철을 제거하고 정동행성 이문소를 혁파했다.
- ②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북의 땅을 회복했다.
- ③ 사림원을 설치하고 신흥사대부를 등용하여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다.
- ④ 신돈을 등용하고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권신들을 억압했다.

정답 : ③

③ 충선왕은 충렬왕 대의 문한서를 사림원으로 개칭(1298)하고 과거 출신자들을 등용하여 왕명 출납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① 공민왕은 기철로 대표되는 친원과 세력을 숙청하였으며, 원의 내정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친원 세력의 연락 기구였던 이문소를 폐지하였다. ② 공민왕은 유인우로 하여금 쌍성총관부를 비롯한 철령 이북의 땅을 수복하게 하였다. ④ 공민왕 때 국가 제정 확보와 민생안정, 권문세족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킬 목적에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고 섭정대사로 신돈을 등용하여, 불법적으로 겸병한 권문세족의 토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풀어주도록 하였다.

10. 고려와 몽골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발생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
|----------------------------------|
| ㉠ 무신정권이 무너지고 개경으로 환도했다. |
| ㉡ 고려가 몽골과 연합하여 강동성에서 거란족을 몰아냈다. |
| ㉢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이 합쳐져 첨의부가 되었다. |
| ㉣ 처인성에서 김윤후가 쏜 화살을 맞고 살리타가 전사했다. |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 ①

㉡ 고려는 1219년에는 강동성을 근거지로 저항을 계속하는 거란군을 몽골·동진군과 연합하여 격퇴하였다(강동의 역). ㉣ 몽골의 2차 침입 때 김윤후가 처인성에서 적장 살리타를 사살하였다(1232). ㉠ 최씨 정권이 1258년에 무너지고 이후 몽골과의 강화가 성립되어 개경으로 환도(1270)하게 되었다. ㉢ 충렬왕 대에는 왕실의 호칭과 격이 격하되었고,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을 합쳐 첨의부로, 6부를 4사로 통합하는 등 관제 개편 및 격하가 이루어졌다.

11. 조선 시대 사회제도와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소송은 원칙적으로 신분에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었다.
- ②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신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처벌이 따랐다.
- ③ 유교에서 중요시하는 삼강오륜을 어긴 것을 강상죄라 하여 중대 범죄로 취급하였다.
- ④ 민간인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범죄가 발생하면 『경국대전』과 명의 형법 규정인 『대명률』을 적용하였다.

정답 : ②

② 조선시대 양인과 천인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도 그 처벌을 달리 하였다. 노비가 양인을 구타하거나 살상한 경우는 같은 노비끼리의 경우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양인이 노비를 구타하거나 살상한 경우에는 더 가볍게 처벌하게 하였다. 노비가 상관을 매도한 경우 다른 부류보다 한 등급 무거운 처벌을 가하게 되어 있었다.

① 조선은 신분제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여성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며, 노비도 상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③ 조선시대 범죄 중에서 가장 무겁게 취급된 것은 반역죄와 강상죄였다. 이 같은 범죄에는 범인은 물론이고 부모·형제·처자까지도 함께 처벌하는 연좌제가 시행되었다. 심한 경우에는 범죄가 발생한 고을의 호칭이 강등되고, 고을의 수령은 낮은 근무 성적을 받거나 파면되기도 하였다. ④ 조선시대 형법은 『경국대전』 「형전(刑典)」에 의해 규정되었으나, 법 조항이 소략했기 때문에 대명률이 주로 적용되었다.

12. 조선 후기 설치된 5군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1652년 남한산성에 금위영을 두고 광주 및 그 부근의 제진을 경비케 하였다.
- ② 1682년 서울에 총포병과 기병을 위주로 한 정예부대인 수어청을 두었다.
- ③ 1624년 서울과 경기의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총융청을 설치하고 경기 내의 군인을 여기에 소속시켜 경기 지역의 제진을 통솔케 하였다.
- ④ 1626년 도성수비를 목적으로 기병과 훈련도감군의 일부를 주축으로 어영청을 설치함으로써 임란 중에 만들어진 훈련도감을 포함해서 5군영의 체제가 완성되었다.

정답 : ③

③ 인조 대 이괄의 난을 진압한 후 도성 수비를 담당하는 어영군의 강화와 함께 수도 외곽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이서(李曙)의 주관하에 경기군을 정비하면서 총융청이 설치되었다. 이후 수어청이 설치(1626)된 후에는 경기도의 남부 방위는 수어청에게 맡겨졌고, 총융청은 북한산성을 중심으로 수도의 북부(개성·광주·남양·양주·장단·수원 등)를 방어하게 되었다.

① 금위영은 조선 숙종 대 설치된 5군영 중의 하나이고,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광주 및 그 부근의 제진을 방어한 것은 수어청이다. 병자호란 후 반청(反淸) 운동의 하나로 남한산성이 재건되면서 수어청 중심의 남한산성 방어 체제가 확립되었고, 효종 대에 북벌론이 전개되면서부터는 광주 부윤(府尹)을 수어부사로 삼아 군사·행정 책임을 일원화(1652)하였다. ② 1682년(숙종 8)에 설치된 군영은 금위영이다. ④ 숙종 대 수도 경비와 국왕 숙위를 담당할 5군영이 설치되면서 중앙군으로서 5군영 체제가 완비되었다.

13.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비석을 세운 왕의 치세기에 편찬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원만하여 편벽되지 않음은 곧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고, 편벽되어 원만하지 않음은 바로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 ① 『주자서절요』
- ② 『국조오례의』
- ③ 『동국병감』
- ④ 『동국문헌비고』

정답 : ④

제시된 자료는 영조가 탕평비를 세운 내용이다. 영조는 붕당을 없앨 것을 내세우며 새로운 세력 집단인 이른바 탕평파를 육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정국을 주도하게 하였다. 따라서 영조 대 편찬된 문헌을 고르면 된다.

④ 『동국문헌비고』는 영조 대 홍봉한이 왕명으로 우리나라 각 영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한국학백과사전이다.

② 『주자서절요』는 퇴계 이황이 조선 명종 13년(1558)에 초학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주자대전』에 실린 주자의 편지를 뽑아 엮은 책을 말한다. ③ 『국조오례의』는 제사 의식인 길례, 관례와 혼례 등의 가례, 사신 접대 의례인 빈례, 군사 의식인 군례, 상례 의식인 흉례의 오례를 정리한 책으로, 성종 5년(1474)에 간행되었다. ③ 『동국병감』은 조선 문종 대에 고조선~고려 말까지 중국과의 전쟁사를 정리한 책이다.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14.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성군에는 교파와 약파가 있다. 교파는 향교에 다니는 자들이고, 약파는 향약을 주관하는 자들이다. 서로 투쟁이 끊이지 않고 모함하는 일이 갈수록 더하여 갔다. 드디어 풍속이 도에서 가장 나빠졌다. -정약용, 『목민심서』-
--

- ① 위 자료에서 교파는 구향을, 약파는 신향을 가리킨다.
- ② 향회를 통해 향촌 사회의 여론을 주도하면서 향촌을 지배하였던 기존의 사족들을 구향이라고 하였다.
- ③ 신향들은 지금까지 지배층으로 군림하던 구향들과 향촌 지배권을 둘러싸고 경쟁하였다. 이를 ‘향전’이라 한다.
- ④ 조선 후기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경제력을 확보한 일부 부농층은 사족들의 향촌 지배권에 도전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향안에 이름을 올리려고 하였으며, 향회를 장악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새롭게 성장한 이들을 신향이라 한다.

정답 : ①

제시된 자료는 조선 후기 향촌 사회에서 향권을 둘러싸고 나타난 ‘향전’과 관련된 내용이다.

- ① 제시된 자료에서 교파는 신향을, 약파는 구향을 말한다.
- ② 향촌 사회에서 종래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던 기존의 사족들을 구향(舊鄕)이라고 한다. ③ 18세기 중반부터 부세의 공동 납부 형태인 총액제 수취권에 대한 향촌 지배권을 두고 구향(사족)과 신향(향리) 간에 향전이 발생하였다. ④ 조선 후기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경제력을 확보한 일부 부농층은 종래의 재지사족이 담당하던 정부의 부세 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향입직(향청에서 일을 보는 사람이나 그 직책)에 진출하거나 수령을 중심으로 한 관권과 결탁하여 향안에 이름을 올리거나 하면, 향회를 장악하여 향촌 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우려 하였다. 이들을 사족 세력인 구향(舊鄕)에 도전하는 세력, 곧 신향(新鄕)이라 한다.

15. 다음은 조선 시대 편찬·간행된 책들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시기 순으로 나열한 것은?

- | |
|--|
| ㉠ 고려의 역사를 자주적 입장에서 정리한 『고려사절요』를 편찬하였다.
㉡ 지리서의 편찬이 추진되어 『신찬팔도지리지』를 편찬하였다.
㉢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동국통감』을 간행하였다.
㉣ 각 군현의 위치와 역사, 면적, 인구, 특산물 등 상세한 정보를 담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을 완성하였다. |
|--|

- ① ㉠-㉡-㉢-㉣
 ② ㉠-㉡-㉣-㉢
 ③ ㉡-㉠-㉢-㉣
 ④ ㉡-㉠-㉣-㉢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정답 : ③

㉠ 조선 세종 대 왕명을 받은 변계량(1432)이 주도하여 각 도에서 지리지를 편찬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전국 지리지인 『신찬팔도지리지』가 편찬되었다(1432). ㉡ 『고려사』를 편찬한 김종서, 정인지 등의 인물들이 거의 그대로 편찬한 『고려사절요』는 문종 대 편찬되었다(1452). ㉢ 세조 때 시작된 『동국통감』 편찬 작업이 성종 때 『삼국사절요』로 마무리된 이후, 그 이후의 역사를 다룬 『동국통감』 편찬 작업이 재개되어 서거정, 이극돈 등에 의해 편년체로 완성되었다(1485). ㉣ 『신증동국여지승람』(중종 25, 1530)은 이행이 중종의 명에 따라 『동국여지승람』을 보충하여 편찬한 지리지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연산군 대의 잘못된 관제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려는 작업의 일환이었다.

16. 다음 자료는 어떤 조약의 일부이다. 이 조약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 1조. 지금부터 20일을 기한으로 하여 조선국은 흉도들을 잡아 그 수괴를 엄격히 심문하여 엄하게 징벌한다.
4조. 흉도들의 포악한 행동으로 인하여 일본국이 입은 손해와 공사를 호위한 해군과 육군의 군비 중에서 50만 원을 조선국에서 보충한다.
5조. 일본 공사관에 군사 약간을 두어 경비를 서게 한다. 병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일은 조선국이 맡는다.
6조. 조선국은 사신을 특파하여 국서를 가지고 일본국에 사과한다. |
|--|

- ① 이 조약을 체결하게 된 사건 이후에도 청은 조선에 군대를 계속 주둔시키는 한편, 유리한 조건으로 조선과 통상 관계를 맺었다.
- ② 이 조약의 제5조에는 공사관 경비를 위해 약간의 병력을 한성에 주둔시킨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1개 대대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그 비용은 조선에 부담시켰다.
- ③ 이 조약 체결의 결과 일본군의 한성 주둔으로 조선을 둘러싼 청·일의 무력 충돌 위험이 커지면서 불안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 ④ 이 조약에 근거하여 청·일 양국은 장차 조선에 군대를 파병할 때에는 상대국에 서로 알릴 것 등을 약속하는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였다.

정답 : ④

제시된 사료는 임오군란 이후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한 제물포 조약(1882)의 내용이다.

④ 갑신정변 이후 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텐진 조약(1885)에 대한 내용이다. 이 조약에는 조선에서의 청·일 양국 군대의 철수, 장래 조선에 변란이나 중대 사건이 일어나서 청·일 어느 한쪽이 파병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미리 알릴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① 제물포 조약이 체결된 계기가 된 임오군란 이후에도 청은 조선에 군대를 계속 주둔시켰고, 이후 청은 조선과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1882)을 체결하였다. 이로 인해 청국 상인들은 조선의 한성 및 양화진에서 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결과 한성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조선의 전통 상인들은 큰 위기에 직면하였다.

② 당초 일본 측은 5년 동안 육군 1개 대대 규모로 일본 공사관을 호위하겠다고 했으나, 조선 측에서 청·일 간의 충돌을 우려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한 결과 약간의 군사를 1년간 주둔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1개 중대 병력이 일본 공사관을 호위하였으며 그 비용은 조선이 부담하였다. ③ 임오군란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청의 군대가 조선 내에 들어오고 제물포 조약으로 일본의 군대가 한성 내에 주둔하게 되면서, 조선 내에서는 청·일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하였다.

17.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던 조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본은 메가타를 대한 제국의 재정 고문으로, 오랜 기간 일본 정부에서 일했던 스티븐스를 외교 고문으로 파견하였다. 이로써 일본은 대한 제국의 재정과 외교에 본격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하였다.

- ① 한·일 의정서 ② 제1차 한·일 협약
③ 제2차 한·일 협약 ④ 한·일 신협약

정답 : ②

② 일제는 한국의 재정 및 외교 정책 쇄신을 위한 외국 고문의 초빙에 대한 협정 체결을 한국 정부에 강요하여 1904년 8월 22일 고문 용병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재정 고문으로 일본인 메가타 다네타로, 외교 고문으로 친일 미국인 언론가 스티븐스가 초빙되었다(일본의 외교권·재정권 장악). 한편, 일본은 2명의 고문 용병 이후 하등의 근거도 없이 자진 초청의 형식을 빌려 군부, 내부, 학부, 궁내부 등 각 부에도 모두 고문을 두도록

하였다.

① 1904년 2월 한·일 의정서 체결로 인해 일본은 한반도에서 군사 전략상 필요한 곳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한 제국은 일본의 승인 없이 제3국과 의정서에 반하는 조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었다. ③ 러·일 전쟁 승리 이후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독점적 지배권이 국제적으로 인정되었고, 사실상 대한 제국은 일본의 보호국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05년 11월 외부대신 박제순의 이름으로 한·일 협상 조약(제2차 한·일 협약), 이른바 을사늑약을 강제 체결하였다. ④ 일제는 헤이그 밀사 파견을 명분으로 1907년 7월 21일 고종을 강제 퇴위하고 이어 7월 24일 이완용과 ‘한·일 신협약(정미7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으로 통감의 권한이 확대되고 차관 정치가 실시되었다.

18. 다음은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에서 있었던 사실들이다.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 |
|--|
| ㉠ 일본과 미국이 극동의 평화를 구실로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상호 인정하며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체결하였다. |
| ㉡ 일본이 과도한 차관을 들여와 재정 간섭을 강화하자, 대구에서 국민이 정부를 대신하여 외채를 갚자는 운동이 일어났다. |
| ㉢ 만주로 진출하려던 일본은 청과 협약을 체결하여 안동과 봉천을 연결하는 철도 부설권을 차지하는 대신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정답 : ①

㉠ 미국의 특사 W. H. 태프트와 일본 총리 가쓰라 다로는 1905년 7월 “미국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승인하며, 일본은 필리핀을 침략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체결하여 양국 서로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였다. ㉡ 국채 보상 운동은 양기탁, 서상돈, 김광제 등이 중심이 되어 1907년에 추진되었다. ㉢ 일제는 을사조약으로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후 1909년 청과 불법으로 간도 협약을 체결하여 간도를 청에 양도하였다.

19. 다음 선언문이 발표된 때로부터 가장 먼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적절한 것은?

- | |
|--|
| 1.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게 하라. |
| 2.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게 하라. |
| 3. 어린이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겁게 놀기에 족한 각양의 가정 또한 사회적 시설을 행하게 하라. |

① 신채호는 김원봉의 요청으로 ‘조선 혁명 선언’을 지어 의열단의 투쟁 노선과 행동 강령을 제시하였다.

- ② 박상진을 총사령으로 하여 군대식 조직을 갖추고, 공화 정부 수립을 목표로 활동한 대한 광복회가 결성되었다.
- ③ 백정은 자신들에 대한 차별 대우를 폐지하여 저울처럼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모아, 경남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를 창립하였다.
- ④ 국내외의 독립 운동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상하이에서 국민대표 회의가 열렸다.

정답 : ②

제시된 사료는 1923년 성립된 ‘소년 운동 협회’가 어린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어린이를 인격적으로 대우할 것에 대해 호소한 ‘소년 운동 선언(어린이 공약 3장)’이다.

② 1915년에 결성된 대한 광복회는 총사령관 박상진을 중심으로 채기중, 김좌진 등이 조직한 무장 독립 단체로, 군대식 조직을 갖추고 군자금 모집과 친일파 처단에 주력하였다.

① 김원봉은 의열단의 단장으로서 의열단의 독립운동 이념과 방략을 정립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신채호에게 부탁하여, 1923년 1월 신채호가 「조선 혁명 선언」을 작성하였다. ③ 조선 형평사는 백정 출신 이학찬을 비롯하여 동아일보 진주 지국장이었던 강상호 등의 주도로 1923년 4월 경남 진주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하였다. ④ 임시 정부의 외교 독립론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이승만의 위임 통치안 제출에 대한 비난 그리고 이승만 및 임시 정부에 대한 불신임 등에 따른 제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921년에 국민대표 회의 소집이 추진되어 1923년 1월에 국민대표 회의가 개최되었다.

20. 다음에서 설명하는 위원회가 발표한 원칙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중도파의 여운형과 김규식 등은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 운동을 전개하였다. 소련과 합의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던 미군정도 이를 지원하였다. 이들은 1946년 7월 하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해 10월 몇 가지 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 ① 한국의 민주 독립을 보장한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에 따라 좌우 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 정부를 수립한다.
- ② 미·소 공동 위원회의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다.
- ③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본 합작 위원회에서 심리 결정하여 실시하게 한다.
- ④ 입법 기구의 권능과 구성 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본 합작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실행한다.

정답 : ③

제시된 자료와 관련된 것은 ‘좌우 합작 위원회’이고, 좌우 합작 위원회에서는 1946년 10월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

③ 좌우 합작 운동이 진행되는 중에 좌익인 민주주의 민족 전선과 우익은 토지 개혁과 주요 산업의 처리, 친일파 청산, 신탁 통치 문제, 인민 위원회와 입법 의원 문제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민주주의 민족 전선은 친일 민족 반역자 제거를 주장한 반면, 우익 측은 임시 정부 수립 후 친일파 처리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좌익과 우익의 주장을 절충한 ‘좌우 합작 7원칙’

4조에서는 ‘친일파 민속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본 합작 위원회에서 입법 기구에 제안하여 입법 기구로 하여금 심리 결정하여 실시케 할 것’이라고 하여, 새롭게 구성될 입법 기구에서 친일파 문제를 다룰 것에 합의하였다.

① 좌우 합작 7원칙의 1조, ② 좌우 합작 7원칙의 2조, ④ 좌우 합작 7원칙의 6조의 내용이다.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海東韓國史